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1년 8월 후원미사는 17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 ~1

### 2021년 5~6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수입 총액		30,483,920		
구분	2021년 5월		2021년 6월	
자 동 이 체	743명	11,876,900	746명	14,180,000
지 로	39명	680,800	103명	923,950
C M S 이 체	100명	1,215,720	103명	1,240,200
이주사목위원회				366,350
합 계	882명	13,773,420	952명	16,710,500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체 찬조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10,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5,796,92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보수공사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4,287,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보수공사비 등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4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2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600,000	제전비 등
	남미공동체	1,000,000	제전비 등
	중국공동체	200,000	의료비 등
	인도네시아공동체	200,000	제전비 등
	상호문화센터	1,4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24,483,920		
시설비	노동사목회관	6,0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0	
지출 총액		30,483,920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좋은이웃

2021. 07 / 제58호

펴낸날 2021. 07. 19.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휘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facebook.com/seoulmigrant instagram.com/seoulmigrant

## 신부님 글

“우리는 모두 이민자이고, 우리 모두는 난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경 안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주민들을 통해 시작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서 그 구원이 시작되었고, 모세도 하느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가정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난 가정을 모든 난민 가정의 원형이라고 칭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민이 곧 구원의 역사였던 것처럼,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현대의 이민 역시 하느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전 세계를 향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주민들을 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지구상에선 전쟁과 박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국경을 넘고, 살기 위해 배를 타지만, 그 참혹한 여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다 하더라도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새 삶을 찾기까지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난민'은 이처럼 전쟁, 자연재해, 인종이나 종교적 차별과 박해, 경제적 빈곤 등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하여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여 이동하여 사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착좌 뒤 첫 방문지로 이탈리아 최남단의 람페두사섬을 찾았습니다. 이 섬은 전쟁과 가난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중간 기착지와 같은 곳인데, 많은 이주자들이 이 섬으로 건너오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교황은 이 비극적인 소식에 줄곧 심장이 가시로 찢리는 듯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징표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가라! 변두리로, 실존적 변두리로 가라." 말씀하시며, 변두리에서 고통받는 이주민들과 같은 약자들과 함께함을 통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이민의 날 담화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주민'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나와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얼굴에서 굶주리시고, 목말라하시며,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나그네이시며, 감옥에 갇히신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해야 합니다"(마태 25,31-46 참조). 즉, 가난한 이들, 이방인을 환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숨을 구하고자 찾아오는 난민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환대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본 고향인 하느님 나라로 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이주민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주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도 똑같은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기에 함께 연대하고 도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이광휘 베드로 신부

## 공동체 소식

### 남미 공동체 소식\*

5월 둘째 주 주일은 라틴아메리카의 어머니날로 한국의 어머니날과 비슷한 기념일을 지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부모들에게는 꽃과 도시락을 선물하였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어린이날 선물을 나누며 다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기쁘게 보냈습니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서로의 문화를 알고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었고 이주노동자 신자들에게는 고향의 기념일을 잊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세계 난민의 날 소식\*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총 6,684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52명으로 (재정착 제외) 2020년 난민 인정률은 0.4%입니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직후 9.7%였던 난민 인정률은 매년 급감하여 2020년 난민심사 인정률은 0.4%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허위 난민 신청자의 증가로 인한 심사 기준의 강화, 난민 심사관 인원 부족 등의 낮은 난민 인정률의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막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견 없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도 똑같은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기에 더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바라보고 환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미안마 민주화 피켓 운동 소식\*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은 해외주민운동연대와 함께 미안마 민주화운동 연대를 위한 피켓 운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사목/노동사목위원회도 6월 매주 수요일 성북천 산책로에서 피켓 운동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미안마 군부가 벌이고 있는 국민에 대한 끔찍한 살상과 폭력적인 상황에 가슴 아프고 하루 빨리 이 상황이 중단되어 민주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미안마의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기도와 연대를 통해 힘을 잃지 않도록 지지하겠습니다.

### 공지사항 소식\*

매월 세 번째 월요일에 드리는 후원미사가 8월(광복절) 대체공휴일과 9월(추석연휴)의 일정과 겹쳐서 미사 일정이 일시적으로 변경됩니다.

**\*후원 미사 일정 변경\***

· 8월 16일(월) → 17일(화) / · 9월 20일(월) → 15일(수)

##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소식\*

(건강보험자격자) 내국인과 같은 대상군일 경우에 동일한 시기 및 접종기관에서 접종 가능,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 예약

(건강보험 무자격자 - 미등록자 포함) 내국인과 같은 대상군일 경우 동일한 시기에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 예약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및 여행목적 방문자 등 제외) 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도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들 또한 똑같은 기준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진단 검사와 마찬가지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백신을 쉽게 접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접종 후 발현되는 증상에 대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할지 등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는 이주민이 없도록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어 예전처럼 모두가 평범한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 노동사목회관 소식\*

어느 좋은 분께서 이주사목위원회가 있는 노동사목회관에 노동자의 수호성인인 성 요셉상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요셉 성인은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성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노동을 신성하며 하느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요셉성인의 전구로 회관에 오는 모든 이들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 받고 노동에서 오는 은총과 행복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 \* 성북구청장 표창

24시간 조혜영 보육교사가 성북구청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2016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베들레헴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과 24시 새벽반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따뜻한 대화와 가르침으로 어린이들이 집처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교사의 현존으로 보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해주셨습니다. 24시 새벽반 어린이들의 경우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부모에게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을 대신 전하며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힘 쏟으셨고 어린이 적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고민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지구생명살리기

베들레헴어린이집은 작년부터 지구생명살리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은 교실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실천해보았고 5월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약속들을 정해서 실천하고 성모성월 미사에 영적 꽃다발로 봉헌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작은 움직임이 지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